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26일(금)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대기보전과	담당자	• 대기정책팀장 정우영 ☎ 440-3501 • 담당자 김형문 ☎ 440-350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미세먼지 저감에 지혜 모아

- ‘제5차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개최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방안 논의 -
-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에 최선 다할 것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천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모였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6일 ‘제5차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성질환 전문의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위원은 인천시청 재난상황실에 모여 2021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 ‘22.3.)’ 시행에 앞서 효율적

인 정책 시행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도로오염원 자동포집 기술 실증,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어서, 올해 인천시와 인하대가 협력해 유치한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유치 경과와 운영 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센터 운영에는 환경 분야의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진이 미세먼지 연구에 참여해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진단·분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대책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2015년 관측 이후,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 기록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정부종합평가 전국 2위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우수기관 선정(환경부) 등 그간 인천시가 추진해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발굴과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당부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며 “위원들의 고견과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